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E-mail: EWUAANA@gmail.com

Phone: (610) 310-5374

발행인: 김영미 편집인: 조효은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22년 7월

2022 Annual Conference & Tour

Philadelphia, Pennsylvania

November 2 - 6, 2022



眞・善・美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선(善)・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선・미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4
• 회장 인사말	5
• 의료원장 인사말	6
• 의대 회장 인사말	8
• 장학사업	10
• 동창탐방	12
• 취미생활	14
• 수필	19
• 지회 활동 소식	24
• 임원명단	25
• 이화여대학과 / 캠퍼스 지도	26
• 여행지 안내	28
• 2022년 총회일정 / 이사회	30
• 연례모임 신청서	31
• 후원자 명단 / 편집후기	32
• 광고	33





사랑하는 북미주 이화 동문 여러분께,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2022년도 이사장으로 봉사 할 박정옥 인사 드립니다.

2019년 Portland Oregon에서의 총회 모임 때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4박 5일은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10 명의 이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유익한 강의를 듣고 Oregon의 유명한 산천, 호수, 바닷가 모래를 밟으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었지요.

2020년과 2021년 서울에서의 연례총회 모임은 안타깝게도 Pandemic으로 인해 취소를 하게 되었고, 계획대로 올해 총회 모임은 11월 2일부터 11월 6일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가 작성되고 발표되었던 곳으로 역사가 풍부한 도시임을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나라의 창립 역사와 정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김영미 회장님과 총회 준비위원들은 오랜만의 뜻 있는 만남을 위해 정성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미주동창회는 어려운 pandemic 상황 속에서도 연례 사업인 장학금을 계획대로 수여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여러 동문들의 참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새 임원진은 11월에 만날 준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동창분들을 전화로라도 찾아 뵈 계획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꾸준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뵈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박정옥** (의대, 71)



북미주 이화 동문 여러분께,

신록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동창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북미주동창회는 2년 이상 계속되는 팬데믹 동안에 안타깝게도 연례총회를 취소해야만 했지만 해마다 장학 사역, 이대서울병원 지원과 동창 회보 발간의 활동을 계속하며 북미주동창회의 본연의 임무와 설립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곳곳에서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두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북미주동창회는 발족한지 22주년을 맞이합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봉사과 헌신을 해주신 여러 전직 회장님을 비롯 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2주년을 축하하는 우리의 만남은 11월2일(수)에서 6일(일)까지 역사의 도시 Philadelphia에서 개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 준비위원회 임원들은 올해 총회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 총회 참가 등록용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참가하기를 원하시는 동창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Philadelphia는 1682년 종교의 자유를 위해 William Penn과 함께 신세계를 찾아 온 Quaker 교인들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으며, Greece어로 “City of Brotherly Lo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76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며, 그 역사의 뒀안길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 나가며 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온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Philadelphia는 Garden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매해 열리는Philadelphia Flower Show는 193년의 오랜 전통을 잇고 있으며, 계절마다 볼거리로 아름다운 Longwood Garden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입니다.

북미주동창회란 울타리 안에서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편안한, 자매 인연으로 우리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이 귀한 동문들을 반가이 맞이하기 위해 준비임원들은 사랑과 정성의 마음으로 한바탕의 즐거운 축제를 준비합니다.

Philadelphia에서 반갑게 만나 뵈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김 영 미** (교육심리, 72)

“이화, 다시 처음으로”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입니다.

어느덧 코로나19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서 지나가고 예전처럼 다시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여쭙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화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동창회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생각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135년 전의 조선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헌신의 마음을 가진 의료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질병과 맞서 싸우며 환자들은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는 자세의 의료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화의료원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처럼 말입니다.

이화의료원은 올해 13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성의,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탄생한 이화의료원은 당시의 의료 선 교사분들의 마음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의료의 본질을 찾아가려 합니다. 이 여정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이 있어 또 한 번 힘을 얻습니다.

우선 동창회 여러분께 이대비뇨기병원의 개원을 알립니다.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비뇨의학과 전문 병원인 이대비뇨기병원이 2월 14일 정식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목동 병원 MCC (Mokdong Hospital Caring Complex) A관에 자리한 이대비뇨기병원은 3개 층, 80개 병상 규모입니다. 이화의 국내 최고 의료진들이 그 간의 노하우를 살려 국내 비뇨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조선 최초로 설립된 여성 전문병원 보구녀관의 전통을 이어 받아, 누군가는 가야하지만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대비뇨기병원의 개원을 통해 이화의료원은 또 한 번 최초이자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갈 이대비뇨기병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대서울병원, 서울 소재 대학병원 최초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으로 대통령 방문



▲ 대학병원 최초 이대비노기병원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12월, 서울 소재 대학병원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 되었습니다. 이대서울병원이 개원 당시부터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기준 병실을 3인실로 구성하고 모든 중환자실을 1인실로 하는 등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 전반에 자리 잡고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에 이대서울병원이 국가를 위한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총 165병상까지 늘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화의의료원의 모든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대비노기병원의 개원, 이대서울병원의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은 결국 환자를 향한 발걸음이자 섬김과 나눔의 실천입니다. 어떤 상황보다도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always, you first라는 의료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35년 전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과 여성선교사, 여성의료선교사, 여성간호선교사들로 시작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화의의료원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였고, 약자의 고통을 치료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인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보구너관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화입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동창 여러분, 135년간 이어진 길을 따라 이화가 걸어가는 길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닐 수도, 폭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요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서양 의학의 시작을 알리고 헌신했던 선배님을 모시고 있는 이화의 역할입니다. 이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화이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화의 이름으로 또 다시 해낼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본질을 향해 이화의의료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화가 여러분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 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 하 올림

북미주 의과 대학 동문들에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장명주 (의대, 77)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 오던 COVID pandemic이 이제는 많이 완화된 듯하나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으로 예정했던 서울에서의 연례총회는 가능치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11월 2일 (수)에서 6일 (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2년간 동창회 모임을 가지지 못하여 올해는 꼭 동문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Pandemic 중에도 의료원은 열심히 성장했습니다. 현재 이대서울병원 858 병상, 목동병원 700 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현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외래환자수 월 49,000명 (년 589,790명), 입원 환자수 월 15,500명 (년 186,500명), 응급실 방문 월 3,500명 (년 42,500명), 건강증진센터 년 16,300명의 숫자를 보였으며, 목동병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보이며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서울병원은 작년 대학병원 최초로 Covid-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 받아 171 병상을 오픈 했습니다. 의료장비, 병상침대 등 물품 및 의료인력 등 개원에 필요한 예산

은 정부 지원으로 되었습니다. 점차 확대하려던 병상을 정부지원으로 개원할 수 있어 이대서울병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합니다.

이대서울병원은 2021년 인턴 수련 병원이 된 후 인턴 5명과 레지던트 5명 (내과 2명, 신경과 1명, 가정의학과 1명, 정형외과 1명), 2022년에는 이대서울병원과 목동병원을 합하여 총 인턴 39명과 레지던트 3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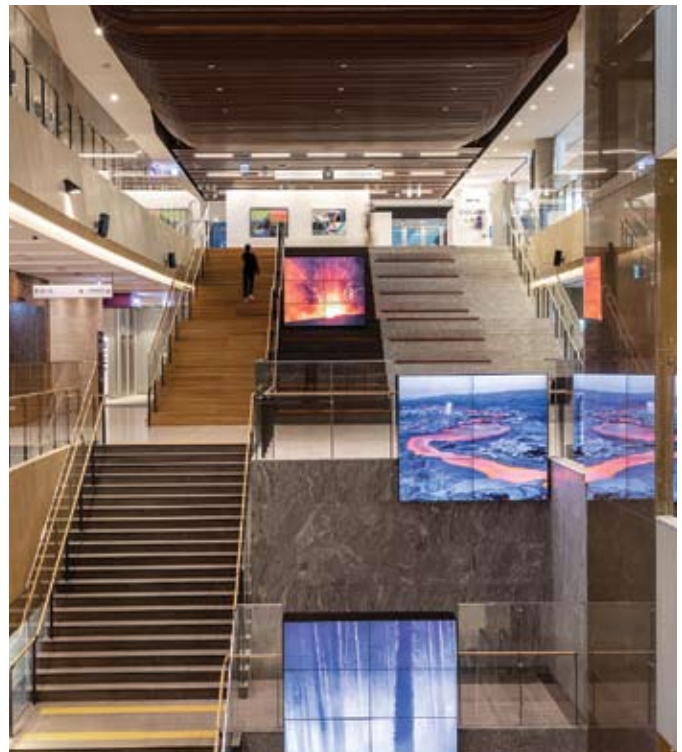
지난 2017년 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관련된 전문의와 staff의 구속은 멀리 있는 의대 동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대 동문들이 모은 기금 \$5,000을 이남희 의과대학 총동창회장께 전달했고, 그 기금은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두 분과 전공의 두 분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남희 회장님께서 “이의회보” 2019년 2월 호에 이 내용을 실으셨으며 감사 하셨습니다. 더욱 기쁜 소식은 2022년 2월 16일 향소심 선고에서 “전원 무죄” 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힘드셨던 모든 목동병원 교수님과 staff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고 강일희(66)동문의 부군(이영무)께서 \$10,000을 기부하셨고, 윤영희(77) 동문이 \$10,000을 매해 수여하고 계십니다.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는 성공적으로 이대서울병원 설립에 총 \$2,000,000 이상의 기부금을 의료원에 지원했고, 동문들의 “Pledge”도 거의 완부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위해 직접 기여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 동문들의 “학교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획했던 한국에서의 동창회를 통해 다같이 이대서울병원도 직접 탐방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방문 예정이 있으신 동문님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꼭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서울병원 건립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신 것같이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함께 하는 의료선교 봉사단 일, 해외동문과 한국 의료 교수진과 staff의 교류와 해외 연수, 의과대학 장학금 설정, 아직 우리 동창회 참여하지 않으신 북미주에 계신 의대 동문들의 포섭 등 몇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나의 학교, 나의 의료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첨단에 서기 위한 다양성의 새 사업을 위한 동문들의 제안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방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초에 열리는 북미주의과대학/이화여대북미주동창회에 많은 의대 동문들이 참석하여 진지한 의논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Philadelphia 연례모임에 유경하 의료원장님과 팀이 참석하실 예정이십니다. 초대에 감사하시며 여러 동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매우 기뻐하십니다.

색다르고 더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는 Philadelphia Meeting에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 3년의 빈 공간을 넘어서 반가운 만남 속에 기쁜 웃음과 담소를 나누시며 의미 있는 의과 대학 동창회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만나 뵈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창립 초기부터 계획하고 실시해 온 장학금을 2022-2023에도 계속 수여합니다. 인재 육성에 뜻있는 여러 동문들의 의지가 모여 매 해 만 불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북미주동창회 장학사업은 이화 동문 유학생과 북미주 거주 동창 자녀 대학(원)생으로 자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3년 전부터는 윤영희(의대, 70)동문이 매해 본교 의대 재학생 2명에게 만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경숙(영문, 66) 동문 가족이 북미주 가정에 입양된 한인 입양아 대학(원)생에게 만 불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본 장학금은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화 졸업 동문 유학생, 자녀, 한인 입양 대학(원)생으로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격려하고, 한인으로서의 자긍감을 가지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과 사회적 지도력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Community College부터 대학원 까지 북미주 거주 이화인 가족과 한인 입양 대학(원)생에게 열린 이 장학사업이 앞으로 더욱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도 장학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사오니 주위에 알려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hshorack@san.rr.com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8월 31일이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essay, 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이며,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받으시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EWUAANA SCHOLARSHIP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ill continue to award scholarships for 2022/2023.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scholarships is Ewha graduates and children of Ewha alumni residing in North America who attend college or graduate school.

This Scholarship Program awards a \$10,000 scholarship annually. It is supported by the generosity of many alumnae who want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our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 our young people. Leaving a legacy of cultivating talented young people of good character and social leadership skills is the hope of all of us.

We want to acknowledge two generous alumnae. For the past three years, alumna Younghee Yoon (medicine, 70) has contributed \$10,000 annually to the support of two students at Ewha University medical school. Additionally, the family of alumna Kyungsook Choi (English, 66) has provided \$10,000 to support a scholarship fund for the Korean College or Graduate School students adopted by North American families.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hesitate to contact Hyoeun Shorack at hshorack@san.rr.com.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f documents is August 31, 2022. The required documents are an application form, an essay, two recommendation letters, a transcript, and proof of enrollment. Additional details for the application can be downloaded from www.ewhaian.org.



Having entered my senior year at Harvard, I can see that my college years are wrapping up. Though interrupted by the pandemic, it's been an amazing experience when looking back. I've met great people and learned so many things, but the crowning achievement of my undergraduate career is yet to come.

As part of my degree in Social Studies, I will be writing a capstone senior thesis. For this purpose, I am studying the secularization thesis and the place of religion in modernity. And,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the Ewha Alumnae Association, I will be able to pursue this sociological research in Europe this summer, conducting interviews on conceptions of laïcité, or French secularism. I know that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the help of the association, and I feel extremely blessed to receive its grace.

Taehwan Kim



2021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대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20여년 전 대학생이었을 때에도, 마음 속 깊이 제가 이화여자대학교의 일원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 했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 이화여자대학교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는 당시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여년이 지나, 저는 어느 새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먼 타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어떠한 한계나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꿈꾸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년의 자락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목표하는 바를 향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배웠던 교육 덕분일 것 입니다. 여성으로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끈기, 자부심, 그리고 용기 - 제가 이화에서 배웠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정신 건강 전문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학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 째에 접어들습니다. 인문학과 심리학을 전공했던 저에게 해부학이나 병리학과 같은 자연과학 과목들은 참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길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가끔씩 하지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만학도의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의 장학금은 참으로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 동창 선후배님들의 지지가 저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가고 있는 이 학업의 길이 그래도 의미가 있고 더욱 열심히 힘을 내어 가볼 만한 길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격려와 지지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이화 동문이 되겠습니다. 목표했던 바를 반드시 이루어서, 저 역시도 더욱 멋지고 영향력 있는 이화 동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실 (기독교학/심리학, 03)

먼저 운 좋게도 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을 받아 뉴욕에서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의 PhD 박사과정을 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에서 postdoctoral scholar 로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진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만큼 이화여자대학 졸업생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더욱 더 연구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드림 (약학, 08)



아름답게 나이들어 가기를 바라는 김명미 동문 (의대, 67)

인간은 참 많은 만남을 한다. 우리가 일생동안 경영하는 일의 70%가 사람과의 일이라고 한다. 부모와 자식의 주어진 만남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마다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 -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머리에 나오는 행복과 불행한 가정에 대한 말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한 가지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효과적인 대화기술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주어진 이 만남을 아름다운 대화기술로 좀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대화기술 -그힘 (Assertive Beautiful Communication Skill, It's Power)]이란 제목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모은 이 흥미로운 책을 얼마전 북미주동창회 김명미 동문(의대, 67)이 부군 여천기(신경정신과 의사) 박사, 서유진(ABC 상담대학교육원)디렉터와 공동저자로 출간했다. 아이 셋을 키우며 30년 이상 의사생활을 한 지금 나는 지난날의 손익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익을 가장 많이 낸 투자는 가족을 위해 쏟아 부은 시간이라며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한다. 가족을 고치려 동분서주했던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대화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쓴 시간들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투자할수록 이익이 확실하고 부자가 되는 대화의 체험을 많은 분들과 나누려고 이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김명미 동창은 1967년 의대를 졸업하고 1968년 도미하여, 뉴욕주 트로이의 종합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끝내고, 시카고 종합병원 임상해부병리학과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밟았다. 1973년 거주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그녀는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병원에서 임상강사로 재직하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부를 다시 시작해 3년 후 자격증을 취득했다.

1977년 개인 병원을 열고 계속 일 해오다 그녀는 2000년 58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했다. 의사 가운은 벗었으나 김 동문의 인생 2막의 봉사생활이 시작되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잊지 못해 나누며 살아야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그녀는 2002년 신학교에 진학, 가정사역자 과정을 시작했고 2007년 ABC상담대화교육원을 설립했다.

1980년 대에 가정불화를 계기로 힘들었던 삶을 신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면서 김 동문은 여러가지 부부, 자녀 양육 등 가정 문제 관련 세미나 및 교육과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니던 교회에서 가정문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1990년부터는 Orange County 가정법률상담소 부이사장직을 맡아 상담 및 교육을 진행했다. 1990년 초 미주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 사례가 이슈화되었고 그때 자신의 역기능과 겹치면서 문제인식을 더 깊게 하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 여성들의 생명보전을 위해 피해 곳을 마련, 보호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상담교육을 할 수 있는 쉼터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설립하게 되었다.

김명미 동문을 포함, 12명의 뜻을 함께 한 여성들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것이 없으니 내가 가진 것들을 선하게, 지혜롭게, 즐겁게 나누는 믿음으로

1993년 7월 비영리 기독교 단체로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푸른 초장의 집: Home of Green Pasture]을 설립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4년을 봉사해 온 김 동문은 푸른초장의 집이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안식처이자 보호소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푸른초장의 집은 과거 20여 년간 약 1300여 명의 가정 폭력 피해 한인 여성들과 어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새로운 삶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도와왔다.

부군 여천기 박사와의 인연은 졸업 후 서울의대 병원에서 인턴을 끝내고 잠시 내과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 병동의 책임을 맡은 chief resident로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 후 미국 시카고에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은 1969년에 San Francisco 총영사로 계시던 시누님 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973년 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의 Santa Ana가 김명미 동문 부부에게는 두 딸과 막내 아들을 키우며 살아 온 보금자리이다. 해마다 자녀들이 손자(4명)와 손녀(2명)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방문할 때면 북적거리는 가운데 정신은 없지만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진다며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녀는 할머니의 자상한 마음을 전해준다.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마무리 하자는 결심속에 김명미 부부는 그동안 ‘본인들에게 주신 감사와 사랑의 빛을 갚자’ ‘건강한 삶을 살자’, ‘못누린 세상의 경이와 신비를 기뻐하며 누리자’, ‘쌓아온 인간관계에서 회개할것은 하고 행복을 누리자’, ‘우리가 가진것을 나누며 살자’ 등을 모토로 하며 황혼의 장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텃마당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보와 체조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텃밭 가꾸는 취미에 흠뻑 빠져 있다. 땅 냄새를 맡으며 거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기도 한다며 그 럽때면 더욱 옛날 할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다.

북미주동창회와의 인연은 Los Angeles에서의 2007년 연례 총회 때 준비위원장으로, 2014년 회장직을 맡으며 봉사하는 가운데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아직도 여러 동창회 임원들은 2014년 2월 Santa Ana 김 회장 저택에서의 2박 3일 강행군으로 모였던 총회준비위원회 모임을 women’s retreat 같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함께 숙박을 하며 정감있는 선후배의 친교는 물론 중요한 동창회 사업을 함께 의논했던 껍 뜻깊은 시간으로 남아있다.

“꿈이 있으면 그 두근거림만으로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김명미 동창은 80세를 넘긴 요즘에도 배우는 것을 좋아해서 컴퓨터 사용하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2015년 크리스천 문학나무를 통해 등단하여 계간지에 계속 연재를 하고 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글 쓰기에 대한 짝사랑이 크데 비해 막상 글을 쓰고 작품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고 수줍어 한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부군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찾고 있단다. 멋진 곳을 여행한다는 생각으로도 무력감과 우울감이 짝 가셔지고 실제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은 한없이 설레인단다.

‘Empathy is the most precious love talk’ - 김명미 동문이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좌우명이다. 그녀는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는 마음으로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귀한 만남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녀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끔 만나서 수다떨며 회포를 나누는 시간을 꼭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 하루 아름답게 나이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나요?

육아와 직장, 가정 관리로 바쁘던 시절, 그 때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많지 않았다.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은퇴하는 나이가 되면 나도 돌아보고, 나를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생활을 가지고 싶어진다. “앞만 보고 살았다”기 보다는 “길 거의 야생화를 음미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즐기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자존을 높이고 자기 계발의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만의 생활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미술관을 다니고, 미술사와 화가들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사진을 찍거나,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고, 꽃과 야채를 가꾸고, 뜨개질, 조각 이불을 만들거나, 독서, 글 쓰기, 등산, 골프, 여행 등 즐길 것들이 너무도 많다. 시작을 하는 방법에도 개인의 성격, 학습 태도, 습관에 따라 천차만별 이겠다.

여기 몇 동문의 취미 생활에 관한 글을 모았다. “how to”가 관심이 있는 취미분야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Mahjong Game

문경자 (건강교육, 67)

마작 또는 마중이라 불리는 이 게임은 중국에서 기원하여 명나라 때부터 중국은 물론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졌고, 청나라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의 playing card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전역과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게임의 rule이 체계화되었다. 기본적으로 게임의 기술과 전략, 계산력이 요구되는 게임이지만 운도 승패를 좌우한다. 두뇌훈련과 장수하는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이제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진 게임이다.

마중은 테이블에 4명이 앉아 각자의 패를 완성시키는 Board game이다. 13개 타일을 가지고 시작하여 각자 차례가 되면 타일 한 개를 집어 14개 만들고, 필요 없는 타일 한 개를 테이블 중앙에 내 놓는다. 이때 다른 참가자들은 그 타일을 선택해서 타일을 조합하기 위하여 버려진 타일을 가져 갈 수 있다. 최종 목표는 같은 종류 수패를 순서대로 3개 모으거나 동일한 패 3개를 모으고, 동일한 패 2개를 완성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14개의 타일을 조합하는 사람이 “마중” 하면 그 판의 게임을 이기게 된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의 어려운 게임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두뇌훈련에 좋은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고 싶은 분께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다.



Museum Tour를 하며 미술사 강의 듣기

김영수 (가정, 66)

요즘 미디어에서 고령화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고 따라서 노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우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가족, 친구 들과의 소통, 취미 생활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2010년에 40년 동안 살던 고향 같은 Chicago 를 떠나 딸과 아들이 살고 있는 뉴욕 주 맨하탄으로 이사를 왔다. 오랫동안 살아온 교외 생활에서 낮 설은 마천루의 대도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과 여러 친구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뉴욕의 ‘알재단(AHL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미술사 강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참석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뉴욕생활을 많이 배우게 되었다.

5년 전부터 미술사 강의에서 만난 10명의 친구들이 미술사를 전공한 뉴욕 주립대학 FIT 교수님을 모시고 Museum Tour Group을 만들어 일년에 5~6 번 정도 뉴욕 시내 여러 박물관의 특별전을 선정하여 한시간 동안 해설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관람을 한다. 특히 교수님의 마이크와 연결된 위스퍼를 회원들이 귀에 꽂고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각자 그림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 교수님이 좋은 기사나 영상 그리고 전시회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수시로 회원들에게 보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지난 Pandemic 동안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작가론을 공부했다.

2022년의 스케줄은 3월에는 New Museum/Faith Ringgold, 4월에는 Whitney Museum/Biennial, 5월은 Metropolitan Museum/American Fashion, 10월은 Jewish Museum/62-63년 미국 미술 그리고 11월은 Whitney Museum/Early 20th Century American Modernism—이렇게 뉴욕의 특별전을 일년동안 쭉 훑어보면 그 당시 관심 받는 작가가 누구이고, 어느 나라의 미술이 한창 뜨고 있고,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이슈도 파악하게 된다.

지난 3월에 전시 계획된 작가 Faith Ringgold 는 92세의 흑인 여자 작가의 회고전이었는데 Pandemic 동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흑인 인권운동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전시이기도 했다. 흑인 작가, 인권 운동가, 여성 운동가 그리고 교육가로 알려진 Ringgold는 사회적 부조리를 지적하는 작품들에 열과 성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은 우울하거나 침통하지 않았으며 작가의 아이다운 순수함과 명랑성이 돋보였다.



관람이 끝난 후에는 근처 식당(Italian 등 맛집)에 가서 함께 점심을 나누며 여러가지 화제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 헤어지곤 한다. 이렇게 모임이 있는 날은 무료한 나날들의 활력소가 되어 며칠전부터 마음은 마냥 들뜬다. 예쁘게 단장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면 젊어 졌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하며 모두가 즐거울 뿐이다. 또 나 같이 미술에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이런 새로운 문화적 체험을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뿐이다.

피아노

이광희 (가정, 73)

내가 처음으로 피아노를 대한 것이 초등학교 일 이 학년이었던 것 같다.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는지 소질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의 뜻에 따라 시작했지만, 집에 피아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생님 집에서 매일 배우고 연습하는 수업이었다. 철없는 때여서 가는 날보다 땡땡이 치는 날이 많았고 결국 연습 부족으로 그만 두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자 나도 같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과 함께 피아노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항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들 연습시키기도 바쁜 상황이어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제 시간이 남아 도는 나이에 이르자 여러가지 취미 생활과 여가 선용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동안 마음에 묻어 두었던 피아노에 대한 열망이 다시 솟아 나기 시작했다. 우선 유튜브의 피아노 교습 site 를 찾아 혼자 자습을 하였다. 요즈음은 배울 마음만 있으면 여러 site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혼자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마침 동창 친구 중에 음대를 졸업하고 가르치는 친구가 있어서 조언을 구하다 보니 따로 선생님을 구할 필요가 없이 가볍게 몇명 그룹 레슨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Zoom으로 하는 레슨이라 한국에 있는 친구 포함 미국 내 전역에 있는 친구들로 구성됐다.



첫번째 원칙이 절대 부담 없이 stress 안 받고 하기, 둘째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COVID-19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부터 13명의 친구들이자 학생들이 친구인 선생님을 모시고 첫 수업을 하였다. 왕초보 수준부터 꽤 잘 치는 친구까지 각자 수준은 다르지만 기초부터 이론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다. 특히 COVID때문에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요즈음엔 연습에 몰두하면 시간가는 줄 모르게 재미에 빠져든다.

손자들 동요나 처 주고 쉬운 반주나 할 수 있음 하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가르치는 썸의 열정에 힘입어 이제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곡까지 도전하게 되었다. 시작한지 이 년쯤 되었고 5월중순에는 첫 리사이틀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엔 비록 Zoom Video로 하지만 언젠가 무대에 설 꿈도 꾸어 본다.

Line Dan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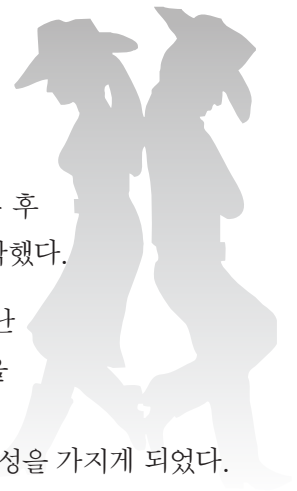
여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엔 시간 여유가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이 여러가지 있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즐겨 하고 싶은 것은 여행과 춤이다. 지난 2년 Pandemic동안에는 이 두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참 아쉬웠다.

Line Dancing은 예전에 살던 옆 집 부부가 매주 즐기며 다니는 것을 보고 나도 언젠가 한 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김계자 (신문방송, 65)

했었는데, Las Vegas로 이사 온 후 친구의 권유로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

기초반에서 시작하여 13년이 지난 이제는 상급반에서 어려운 스텝을 배우고, 다음 주에 배울 스텝을 외우며 예습까지 하는 놀라운 열성을 가지게 되었다.



Line Dancing은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다양한 음악에 맞추어 여러가지 스텝을 하여 운동으로 서도 좋고, 스텝을 외워야 해서 뇌운동이 된다. 이제 Line Dancing은 내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많은 도시마다 senior center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동문들이 한번 시도해 보셔서 다음 연례총회 때는 지역별 장기 자랑도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래 본다.

또 하나의 취미로 나는 새로운 곳이든 익숙한 곳이든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여행을 즐긴다. 누군가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이다.’라고 했다. 걷기도 하고 장터 구경도 하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여행도 그중 하나란다.

멋진 곳을 다녀보며 외로움, 우울감이 가셔질 뿐 아니라 80살이 되어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 설레고, 여전히 감동이다. 여행은 혼자라도 좋고 친구와 함께 여도 좋다. 여행 그 나름 의미가 있고, 여행지에서 얻는 감동과 감흥은 새로운 활력을 주어, 여행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나는 다음 여행을 구상한다.

기나긴 pandemic 동안 내가 계획한 여행은 11주간의 한국 healing 여행이다. 되돌아보니 내가 한국을 떠난 지 50년이 되었다. 이제 내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내 조국의 산천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며 여생을 생각해 보려 한다. 이 여행의 끝은 감사와 위안과 평안이 되리라 기대하며 나는 의미 있는 이 긴 여행을 혼자 떠난다.

유화 그리기

조효은 (교육, 71)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생각하던 고등학교 시절 내 절친과 함께 미술 과외 수업을 잠시 받았었다. 늘 관심있고 소질도 없지 않은 듯했지만,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 그 분야 전공은 아쉽게도 접었다. 하지만 늘 내 책상 서랍 속에는 “크레파스”를 간직해 두고, 시간이 생길 때면 Continuing education class도 다니고, 가끔 개인 교습도 받으면서 그림 그리기에 마음을 놓지 않았다.

은퇴를 하고 정식으로 미술공부를 할 계획으로 2년제 대학에 등록하였다. 대학 과목은 실기, 이론, 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창의력을 발휘하여 Project를 하고 시험을 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미술의 기본 이론을 배울 수 있어 내게는 정말 유익한 공부였다. 4년제 대학을 고려하던 무렵, 과거의 꿈에 집착하기 보다는 취미로의 그림 그리기가 현재의 내게 적절하고 실질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도 Art Museum, 대학의 Extension course에서 실력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그림 style, 가르치는 방법이 내게 맞는 선생님 한 테서 소규모 group 교습을 현재는 받고 있다. 주마다 한 번 미술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critique 도 하면서 그림 동지들과

친분을 쌓아 가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내 시간은 모든 것을 잊고, 색깔이 만드는 새로운 image가 흥미로워 몰두하게 된다. 나이가 들 수록 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혼자 보내는 시간도 좋고 귀하지만 자칫하면 외롭고 세상과 단절할 수 있어, 동호 모임은 또한 꼭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서로 나누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pandemic 기간 중에는 zoom을 통해 course를 듣기도 했다. 요즘은 수많은 online course 와 video가 있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림 배우기가 훨씬 수월하다.



백수의 취미 생활

김영자 (약학, 66)

직장 생활 40년을 하고 은퇴한지 벌써 12년이 되어간다. 기다렸던 백수 생활이다. 나는 1969년 미국에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직장에서 연륜을 쌓아 가면서 은퇴의 꿈도 꾸게 되었다. 정년 퇴직을 하면 무엇을 할까, 가끔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두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에 보낼 때까지, 그들을 위한 시간은 있었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았다. 여행!

내가 Pennsylvania 주 Lancaster에 살 때 그곳에 좋은 미술 학교가 있었다. 누구나 아름다운 그림을 즐기고 감상한다. 나는 그중 수채화를 더 좋아한다. 정식 학점을 얻는 것보다는 일반인으로 등록하여 수채화 강습을 두 학기 택했다.

6년전에 딸이 이곳 California 주 Walnut Creek 의 Active Senior Adult Community 를 찾아내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은 많은 클럽 활동을 제공하고 있어 하고싶은 의욕만 있으면 대체로 다 할 수가 있다. 여러 종류의 sports, painting (oil, water color, charcoal 등), Photography, ceramics, sewing, Jewelry 까지도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오락 클럽, 댄스, 음악 클럽 등이 있고, 정치토론 클럽도 있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많은 County 또는 City 에서 연로자들을 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걸 잘 알아낼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한다. 각 지역의 도서관에 멤버십을 두고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Local community college 나 Vocational school 의 Website에 들어가 무슨 학과목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고 자기 흥미에 따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어떤 때는 광고 pamphlet 도 무조건 버리지 말고 유심히 보면 Senior 들을 위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발견할 수 있다.

2년전 Covid pandemic이 시작되었을 때 이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고민 끝에 새로운 언어 하나를 공부하기로 했다. Duolingo App을 설치하여 Spanish를 배우기로 했다. 공부 시작한지 1년 3개월이 되지만 아직 회화에 능숙 하려면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Duolingo App 은 무료이다. 이곳에서 아주 많은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 심지어는 Ireland의 거의 잃어져 가고 있는 말도 배울 수가 있다. 무료지만 돈을 조금 지불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권장하고 싶은 App이다.

교회에 적을 둔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한 서비스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삶의 일부본일 것이라 생각한다. Food Pantry, Service for Homeless 등등, 마음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자선사업체를 찾아 내어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새는 5월 말에 있을 공연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는 합창으로 분주하다. 그리고 머리 뒷 구석엔 선교 여행에 대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고, 어디서 들었던가, 무직자가 더 바쁘다고... 우리 이대 동문들이 자기 개성에 맞는 취미, 흥미를 발전시켜 남은 날들을 즐기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



최경숙 (영문, 66)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본다. 어느덧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아주 짧은 그런 나이에 와 있다. 요즘 세수 후 거울을 보면, 친정 어머니가 보인다.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인가 보다. 젊었을 때엔 시력으로 거울을 봤지만 이젠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런지... 세월의 빠름을 다시한번 실감하면서 세월을 거스르지 않고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다.

정든 고국을 떠나 뜻하지 않은 이민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인생의 참면을 찾게 만든 것 같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주인공의 긍정적 태도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었다. 무인도에 홀로 사는 외로움이 있으나 자연의 과일나무와 생선 등 굶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기뻐하고, 파선 되었을 때 옷가지는 잃었으나 온화한 기후를 감사한다. 무기가 없어 처음엔 두려웠으나 사나운 짐승도 야만인도 그 섬에 있지 않음을 감사한다. 말할 상대가 없었으나 하나님과 이야기 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환경과 조건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발견하는 것임을 터득하게 하였다.

인생은 단 한번 주어진 육체적인 기회인 것이다. 어느 목사이며 아동 문학가는 인생을 그 특징대로 나누어 한마디로 10대는 ‘배움’이고, 20대는 ‘이성’이고, 30대는 ‘생활’이고, 40대는 ‘자유’이며 50대는 ‘여가’이고, 60대는 ‘생명’이고, 70대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했다. 생명의 존엄성을 정말 실감한 것은 많은 고통을 직접 겪고, 남의 고통도 보고 산 60대 이후란다. 생명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삶든 좋든 나는 그것을 받아야 하고 잘 가꾸어야 한다.

산다는 자체는 생명의 발을 갈기 위한 삶이 아닌지... 생명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생명을 훌륭하게 가꾸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자신이 처한 자리가 비록 만족치 못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때는 오늘이고 바로 지금 이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저서 “세가지 질문”에서 지혜롭게 가르쳐 준다.

스스로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아침부터 생각을 하고 실천해 보자. “오늘은 ‘고맙다’는 인사 말을 많이 하겠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겠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 등 작은 일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아 살도록 노력하자.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때 문은 손과 이마에 맺힌 땀방울의 아름다움·다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대신 마음 아파하는 아름다움·사람의 향기는 외모에서가 아니라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스며나오는 것임을 연륜을 더해가며 깊이 깨닫게 된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속에 살아 간다는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며, 영생의 소망속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언제 다가 올 죽음도 그리 두렵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이들어감은 서러움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이야기했다. 하나는 주님 닮아감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 빌 날이 가까워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신은 쇠약해 질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닐까...

배움은 힘ियो, 열정과 꿈은 나이와 노년을 넘어서는 것이다. 거울 속에 자신의 인생사를 비추어 보자. 성경이라는 진리의 거울 속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날로 빛으로 충만된 얼굴로 가꾸어 나가자. 나의 얼굴이 나의 자녀에게 참된 스승이 되게 하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여인은 아니어도, 남에게 눈부시도록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한다. 삶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산티아고 순례기



박순자
(국문,67)

Santiago de Compostela (산티아고 대성당)

예수의 12 제자중의 한명이었던 야고보 성인 (Latin 이름: Jacobus, Spain 이름: Santiago, 영어 이름: James, 불란서 이름: Jacques)은 지금의 스페인의 Santiago 지방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 갔다. 거기서 참수형으로 12 제자중 처음으로 순교를 하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그가 전도하던 스페인의 Santiago로 모시고 와서 매장하였다. 그후 한동안 그 사실은 잊혀졌다가 9세기에 이르러 그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그의 유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되었다. 그의 유골은 화장되었고, 그 재가 뿌려진 곳을 중심으로 성당이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Santiago de Compostela 대성당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산티아고 대성당의 규모는 길이 100m (330ft), 폭 70m (230ft), 높이 75m (246ft)이고 12세기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12세기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였는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야고보 성인의 유골의 발견과 그에 따른 성당의 건축은 유럽 기독교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 그의 무덤을 보러 오는 순례자들이 몰려 들게 되었고, 산티아고는 전세계 가톨릭의 3대 성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나머지 둘은 예루살렘과 로마이다. 또한 여기를 다녀오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산티아고를 찾는 순례자들의 수는 매해 늘어나 2019년에는 약 35만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나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2009년에 남편의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행사가 서울에서 있어 갔을때, 남편의 동창생 중 하나가 산티아고를 다녀 왔다면서 흥분해서 얘기를 할 때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게 되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들었던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느 사이에 나도 가 보고 싶게 되었고, 그 마음이 집념처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어느 사이에 내 Bucket List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자기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 시작하지만, 보통 공식적인 출발지는 불란서의 생장피드포트 St-Jean-Pied-de-Port 란 긴 이름을 가진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산티아고 까지는 거의 정확히 800km, 대략 500mile이다. 하루 27km 씩 매일 걸어도 30일이 걸린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나 부상등으로 중도에서 기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발에 물집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우리나라로 하루 27km씩 30일을 계속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기간을 늘려 잡아야 하는데 집안 형편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3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집이다. 일하는 아들 내외 대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40일씩이나 집을 비우겠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며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두달이면 내 나이 78, 우리 남편의 나이는 81이다.

지금 이 아니면 정말로 나이가 들어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또, 이제 제일 어린 손녀가 15살, 자기들 학교 가는 앞가림은 우리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내가 평생 해 보고 싶던 것을 해 보고, 또 내 짧지 않았던 인생도 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펄쩍 뛴다. 당연 한 일일 것이다. 그는 가톨릭 신자도 아니다. 미쳤다고 제 돈 쓰고 그 고생을 할거냐며 절대로 안가겠다고. 그렇다면 비상수단을 써야했다. 정말로 안가겠다고 하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나섰다.

다행히 마음 약한 우리 남편이 저 주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 사정을 생각해서 떠날 날을 잡으니 떠날 때까지 한달 반이 남았다. 남들은 대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데 일년씩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들어 간다는데 그럴 사치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떠날때 까지 Chicago Botanic Gardens를 여섯번 나가 걸어 본 것이 우리 준비의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 원죽도 갔고, 소풍도 갔고, 대학에서는 강화도에 있는 마니산, 또 설악산의 울산바위, 대청봉, 한라산의 백록담도 올라가지 않았던가! 마음을 크게 먹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대신 우리 나이를 생각하여 약간의 편법을 쓰기로 하였다. 3, 40일간의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자면 짐이 상당히 커진다. 그 큰짐을 짊어 지고 먼 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걸기란 우리 나이에 무리라고 생각해서 큰 짐은 부치고 그날 필요한 것들 만 작은 백에 넣어 짊어 지고 가기로 했다. 나는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걷기 시작하면서 보니 순례자들 열에 7, 8명은 다 우리처럼 작은 등짐들을 메고 걷고 있었다.



Alto del Perdon (용서의 고개. 해발 770m)



Cruz de Ferro (철 십자가. 해발 1,504m) Alto de San Roque (어느순례자의 동상 앞에서)

큰 백을 메고 다니는 순례자들은 대개 젊고 건장한 사람들이었다. 또, 많은 순례자들이 알베르케라고 하는 공동 합숙소에 머물렀는데 우리는 호텔을 이용하기로 했다. 새벽 5, 6시 부터 일어나 설친다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였다. 작은 백이라고 해도 이것 저것 넣다 보면 10 파운드 정도는 되었다. 또 우리가 시카고로 돌아 와야 하는 시간이 있어 Burgos에서 Leon까지 약 160km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왜냐하면 손주 명찬이의 생일과 손녀 혜찬이의 졸업식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렇게 우리는 4월 16일 생장드피드포트 St-Jean-Pied-de-Port를 떠나 해발 1,430m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 순례를 시작해서 5월 17일 천신만고 끝에 산티아고에 도착 했다. 약 400 mile, 640km를 32일간에 걸었다.

신기하게도 우리 두사람 다 아무데도 아픈 곳 없이, 그 혼한 발의 물집도 생기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것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이심을 안다. 걷는 동안에, 저 멀리 넘어야 할 산이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다음 도착해야 할 곳 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막막할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럴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닐까?

(또한 이 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준 남편 성봉씨에게 감사한다.)

멋진 내일을 위한

새생각



김명미 (의대, 67)

밤새 쉬지 않고 일을 하던 나의 뇌세포는 아침이 되자 그날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어제 심은 호박모종이 안녕한지, 기침이 심한데 코비드에 걸렸나, 폐렴인가, 허리가 아픈 아들이 수술을 해야 하나,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등 시시결결한 생각들이 오늘 아침메뉴다.

우리는 누구나 100세까지 팔팔하게 정신줄 놓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행복 할까에 생각을 쏟고 그 욕구를 채우려 한다. 동시에 필연적으로 주어진 수많은 문제는 피할 수 없어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환경이나 주위에서 문제해결을 찾아 헤메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지프스의 삶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주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행복이나 불행의 개념은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 생각에 달렸다는 것이다.

위인과 철학자들은 나의 생각이 나이고 나 됨이라 했고 뇌정신과학자들은 행복과 생각에 대한 뇌의 기능을 다루어 연구했다. 저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스로우(Abraham Maslow)가 ‘긍정적 심리학’이란 말과 개념을 발표 한것은 거의 70년전 일이다. 그것을 일반에 널리 알린 사람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던 마틴 세리만(Martin Seligman)이다. 그때까지 인간의 정신적 문제나 불행을 괴로운 증세 즉 부정적(Negative)인 것들에 초점을 두고 증세들을 경감 해소하려 했으나 결과는 그다지 만족지 못했다. 근래에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긍정적 심리학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통을 경감하고 정신생활을 활성화하는 치료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정서와 생각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다. 둘 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둘의 조화가 필요하나, 긍정적 생각과 정서를 강화하는 것이 만족한 삶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인간의 감정 주로 두려움, 불안과 분노는 고통을 동반하는 부정적인 것이지만 인간을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뇌의 기본기능이다. 감정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한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다. 세상이나 환경을 바꾼다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고 돈을 많이 벌려하는 등 최선을 다 하지만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뿌리가 우리 내부에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다.

고급기능을 가진 전뇌는 인지와 생각을 하는 뇌의 중요한 부분이다. 뇌의 다른 부분보다 발달이 늦어 20 대 중반이 되어야 성숙하고 장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할 수 있다. 이 기능이 가소성이고 인간이 뇌를 조정될 수 있다고 연구가는 믿는다. 어떤 생각을 하면 뇌에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이것이 감정을 자극한다. 생각을 조정하면 그에 맞는 감정이 따르고 신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어 우리의 언행이 결정된다. 설명을 더하면, 외부의 자극이 오감을 통해서 또는 신체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해서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때 새로운 뇌세포 회로(circuit)가 생긴다.

이 시그널이 신체에 보내지면 우리는 그에 맞추어 반응한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몸의 반응이 한꺼번에 같이 뇌에 입력된다. 이런 반복적 사이클은 뇌의 의식 밑에 저장 되어(subconscious mind 95%) 자동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 생각은 의식적으로 쉽게 변화하기 어려워 노력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노력만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실패자로 느껴지고 실패자 처럼 행동하고 실패자라 믿는다. 이런 반복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고 인생을 파괴하는 신념이 형성된다. 심리적인 암 덩어리가 생긴 것이다. 홀로 사는 사람들이 다 외롭거나 우울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문제를 받아들이는 생각의 차이 때문이다.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변화하고 언행에 영향을 미친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감정인가? 두려운가? 화나는가? 걱정되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각종 생각들과 만난다. 걱정했던 생각을 되씹는 버릇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 가고 있는 생각을 재차 생각하고 방향을 돌리며 새 생각을 하는 힘을 키운다.

긍정적 생각과 정서는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여 우리의 신체, 심장 혈관 소화기 두뇌를 보호한다. 심한 면역 염증 반응과 종양을 방지하고 정신적으로는 기쁨과 행복감을 준다. 긍정적인 생각은 세상은 고통스럽지만 살만하다, 못 믿을 나쁜 사람도 많으나 좋고 선한 사람도 많다, 쓴 맛도 있지만 단 맛도 있다, 오늘은 실망했으나 내일은 희망이 있다, 언제나 또 한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나의 이 두려운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 세상과 부딪쳐 보면 잘 알 것이다. 세상에 감사와 행복이 널려 있다 등 밝은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새로운 긍정적인 언행은 새로운 뇌세포를 자극해서 새로운 좋은 생각, 감정의 뇌세포와 재 구성(rewire)을 하고 서로 연결한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뇌가 이에 따라서 발달한다. 같은 종류의 뇌세포가 한데 뭉쳐 작동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점차 변화한다(fire together, wire together). 사고, 감정, 행위가 서로 연결, 협조해서 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결국 생각의 힘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나에 대한 남편의 평가는 대체로 ‘당신은 못해’라는 낙제 점수다. 나는 뭐든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그것을 대 놓고 반박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삼켰다.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이 비웃는 못난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그의 평가는 그 상태에 머물렀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했던 나는 긍정적 심리학에 몰입했다. 나는 상한 마음에 새 생각을 심기로 했다. ‘그 사람의 평가 일뿐이야, 그 사람 평가에 내가 왜 좌지우지 해야 하나, 난 이만 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래 내가 못하는 것이 많아, 그러나 하는지 못하는지는 해 봐야 알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남편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의 인생을 멋지게 바꾸는 새 생각, 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로 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나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 삶에 지쳐 포기 상태에 처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전염병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마음에 생각의 새 씨앗을 심고 어떤 씨앗이 나고 꽃이 피나를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새 생각을 심고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새로운 언행을 하는 새로운 나됨을 설계했다. 신은 행복과 불행은 인간 맘 속에 숨겨 놓고 마음먹기에 따라 보석이 보이니 찾으라고 했다.

나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건전한 생각을 생각하도록 나의 뇌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오늘 의사를 만나 폐 검사를 해야겠다.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를 해야 알 것이다. 기침 한다고 다 나쁜 병은 아니니까.

Chicago

시카고

시카고 동창회는, 2020년 3월 COVID-19 Pandemic으로 lock-down 이 발효 된 이후, 계획했던 동창회의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대신, zoom 을 통한 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시는 동문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자 Mask Project 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해 11월 초에 180 여명의 시카고 동문들께 아름다운 배꽃 무늬가 새겨진 마스크를 우송해 드렸다. 2021년 6월에 lock-down order 가 해제됨에 따라, 연임하는 오구미(의학, 78) 회장과 임원단이 7월1일자로 출범하여, 가을 정기 임원이사회 (9/11/21)를 시작으로 하여, 성탄/연말파티 (12/12/21) 로 한 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다.

2022년 올해 첫 모임인 정기 봄 임원이사회 (3/2/22)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차기회장 이해숙 (생물, 81) 추천 및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사안들, 시기 적절하고 유익한 강의 (제목: 우크라이나 전쟁과 소련의 경제제재 조치, 최진욱 De Paul 대 교수), 그리고 정다운 교제시간도 보내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7일에는 연례총회 ‘이화의 밤’이 계획되어 있고, 6월 11에는 동문들과 가족들을 위한 이화 피크닉이 열릴 예정이다.

회장 오구미 (의대 78)



Las Vegas

라스베가스

2022년 봄을 맞는 따뜻한 만남, 우리 지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만나는 모임이었다. 3월초라 아직도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으나, 새봄을 맞으려는 봄꽃들이 꽃봉오리를 터트리려 하는 화창한 봄날이었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만날 수 있는 모임이라 모두 기쁜 얼굴들이었다.

한국 음식점에서 만난 동문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 격려하고, 밝은 모습으로 웃음꽃을 피웠다. 모임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회계부가 담당할 일에 대해 의논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동안 생일을 지내신 분들과 다음모임까지 생일이 있으신 분들께 생일 케익을 준비해 축하하고 우리의 모임을 마쳤다.

라스베가스 지역의 많은 동창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회장 정현숙 (간호, 69)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22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이사장	박정옥	(의대 71)	Irvine, CA	장학부	윤영희*	(의대 70)	Welsh, LA
회장	김영미	(교심 72)	Philadelphia, PA		이춘자	(약대 62)	Los Angeles, CA
부회장	성시희	(물리 70)	Los Angeles, CA	이중자	(영문 62)	Chicago, IL	
준비위원장	이영옥	(불문 63입)	Philadelphia, PA	윤중은	(의학 59)	Albuquerque, NM	
총무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조효은	(교육 71)	San Diego, CA	
서기	이정화	(수학 81)	Chicago, IL	사회봉사부	장현자	(의대 67)	Los Angeles, CA
	민해성	(약학 76)	Chicago, IL		유진순	(심리 57)	Chicago, IL
회계	하양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음악, 연예부	김영숙*	(약학 60)	Troy, MI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오유심	(의대 76)	Chicago, IL
감사	윤종식	(의대 59)	Albuquerque, NM	김수자	(의대 68)	Chicago, IL	
	홍명희	(의대 69)	Chicago, IL	홍보부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자문위원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이명숙	(도서관 66)	Las Vegas, NV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김소영	(불문 63)	San Diego, CA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윤미라	(기약 60 입)	San Diego, CA	
	김광명	(의대 77)	Sioux Falls, SD	현재	(체육 90)	Chicago, IL	
	김명미	(의대 67)	Los Angeles, CA	주	(약학 55)	Los Angeles, CA	
	김계자	(신방 65)	Las Vegas, NV	회원부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조정기	(의대 66)	Madison, WI
공천위원	장명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이우동	(영문 57)	Hernando, FL	
	이종자	(영문 62)	Chicago, IL	윤영임	(의대 64)	Rifton NY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이삼희	(가정 68)	Las Vegas, NV	
	민경해	(영문 65)	Vancouver, BC	안미사	(신방 67)	Temecula, CA	
	권오화	(가정 61)	Chicago, IL	권영애	(의학 64)	Las Vegas, NV	
모금위원	한영숙*	(영문 60)	Los Angeles, CA	박선영	(가정 66)	Washington, DC	
	김명미	(의대 67)	Los Angeles, CA	김춘지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김광자	(불문 66)	Washington, DC	문경자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구광자	(가정 67)	Chicago, IL	한진혜	(약학 74)	Minneapolis, MN	
	장명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전광숙	(사회사업 69)	Calgary, Canada	
	오구미	(의대 78)	Chicago, IL	김평화	(사회학 68)	Portland, OR	
재정운영위원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홍순조	(사학 68)	Riverside, CA	
	김희영	(피아노 75)	Chicago, IL	회원부	심유나*	(영문 79)	Chicago, IL
	하양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한수강	(영문 65)	Las Vegas, NV
회칙개정위원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홍희영	(의대 69)	Chicago, IL	
	김명주	(의대 67)	Los Angeles, CA	김초영	(사상 60)	San Francisco, CA	
	이주연	(의대 59)	Plano TX	민창순	(간호 84)	Chicago, IL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서윤순	(작곡 79)	Minneapolis, MN	
	박정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김정순	(약학 61)	Las Vegas, NV	
	구광자	(가정 67)	Chicago, IL	남금자	(약학 65)	Los Angeles, CA	
	김영희	(약학 68)	Irvine, CA	김안나	(영문교육 82)	Calgary, Canada	
	김영미	(교심 72)	Philadelphia, PA	박향자	(가정 66)	Washington, DC	
교육부	이종자*	(영문 62)	Chicago, IL	홍옥선	(교심 75)	Washington, DC	
	김영희	(약학 68)	Irvine, CA	채은화	(의대 71)	Los Angeles, CA	
	김정혜	(약학 67)	Playa Vista, CA	미술 사진부	김흥자*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홍진희	(가정 68)	Los Angeles, CA		박선영	(가정 66)	Washington, DC
	윤방순	(정외 69)	Seattle, WA	이안숙	(의대 71)	Los Angeles, CA	
	민해성	(약학 76)	Chicago, IL	오구미	(의대 78)	Chicago, IL	
예배, 선교부	안정옥*	(의대 73)	Los Angeles, CA	정옥지	(동양 65)	Washington, DC	
	장금자	(간호 61)	Clearwater, FL	이희자	(실내장식 65)	Washington, DC	
	성시희	(물리 70)	Los Angeles, CA	서동주	(도예 82)	Chicago, IL	
	강영숙	(약학 60)	Troy MI	조미경	(법대 89)	Calgary, Canada	
	서동주	(도예 82)	Chicago, IL	조수경	(가정 64)	Los Angeles, CA	
	최영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양태이	(섬유예술 68)	Tustin Ranch, CA	
				편집부	조호은*	(교육 71)	San Diego, CA
					임성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유진순	(심리 57)	Chicago, IL
					최경숙	(영문 66)	Galloway, NJ
					김정희	(가정 60)	Chicago, IL
					이정순	(화학 57)	Chicago, IL
					최영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 Chair person

이화여자대학교 학과

지난 수 십년간 이화는 한국 및 국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알맞은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인재 양성,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전문지식, 학문과 기술이 고도화되는 급변하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화, 세계화, 전문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통해 인문, 과학 등 각 분야의 여성 전문 인양성 기관으로 이화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한 예로 스크랜튼대학의 국제학전공은 2001년 국내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국제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학부교육이다.

이화는 세계최대규모의 여자종합대학교로서 13단과대학이 있다. 학부 재학생수는 14,135명 대학원생 수는 5,583 명으로 총 약 20,000 명의 재학생과 약 3,300 휴학생이 있다. (2021년 10월1일 현재)

2021년 8월 현재 총 졸업 생수는 244,261명이다. (학사 졸업 183,609명과 대학원 졸업생).

캠퍼스도 정문, 후문, 서문, 북문, 북아현문으로 들어 올 수 있고, 재학생들의 학습공간도 대강당, 중강당, 본관, 음악관, 학관, 교육관등 오래 된 건물 외 이화 캠퍼스복합단지, 이화역사관, 자연사박물관, 아산공학관, 신공학관, 종합공학관등 많은 건물이 증축 되었다.

다음은 2022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학과안내서에 기록된 학부와 대학원 정보를 요약하였음을 밝힌다. (편집부)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기독교학과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학부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물리학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화학- 나노과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엘텍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차세대기술공학부 전자전기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화공신소재공학전공, 건축학전공, 미래사회공학부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기후 - 에너지 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음악대학

건반악기와,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한국음악과, 무용과

조형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동양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도자 예술전공), 디자인학부, 섬유패션학부 (섬유예술전공, 패션디자인전공)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교육공학과, 특수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국어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신산업융합대학

융합콘텐츠학과,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식품영양학과, 융합보건학과, 체육과학부

의과대학

의예과/의학과

간호대학

간호학전공, 글로벌건강간호학전공

약학대학

약학전공, 미래산업약학전공

스크랜튼대학

뇌-인지과학전공, 국제학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스크랜튼학부자유전공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학과간협동과정,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신학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공연예술대학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지도

- 1 정문
- 2 이화 아트 파빌리온
- 3 입학관
- 4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 5 본관
- 6 체육관 A동
- 7 체육관 B동
- 8 체육관 C동
- 9 조형예술관 A동
- 10 조형예술관 B동
- 11 조형예술관 C동
- 12 자연사박물관
- 13 조형예술관 실기동
- 14 음악관
- 15 연구관
- 16 영학관
- 17 헬렌관
- 18 100주년기념 중앙도서관
- 19 법학관
- 20 공관
- 21 아령당
- 22 이화역사관
- 23 진선미관
- 24 대학원관
- 25 중강당
- 26 대학원 별관
- 27 대강당
- 28 100주년기념 박물관
- 29 운동장
- 30 국제교육관
- 31 대학교회
- 32 서문
- 33 I - House A동
- 34 I - House B동
- 35 이화 · 삼성국제기숙사
- 36 I - House D동
- 37 I - House E동
- 38 이화·알프스어린이관
- 39 부속유치원
- 40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 41 이화·SK텔레콤관
- 4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 43 이화·신세계관
- 44 다락방
- 45 부속초등학교
- 46 부속이화·금란중학교
- 47 후문
- 48 학생문화관
- 49 약학관 A동
- 50 약학관 B동
- 51 이화·포스코관
- 52 학관
- 53 인문관
- 54 복문
- 55 교육관 A동
- 56 교육관 B동
- 57 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 58 종합과학관 A동
- 59 종합과학관 B동
- 60 종합과학관 C동
- 61 종합과학관 현대자동차동
- 62 아산공학관
- 63 신공학관
- 64 산학협력관
- 65 연구협력관
- 66 약초원, 온실
- 67 법인행정동
- 68 북아현문
- 69 테니스장
- 70 종합사회복지관
- 71 한우리집
- 72 오뚜기국제관
- 73 E - House
- 74 ROTC관
- 75 하늬솔 빌딩
- 76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여행지 안내



Philadelphia City Hall

Pennsylvania (PA) 주는 영국 작가 William Penn이 아버지 Admiral Penn을 기념하기 위해 Pennsylvania, Penn's Woodlands (sylvania는 Latin어로 "woodlands")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William Penn은 당시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Quaker를 비롯한 종교적 minority를 보호할 피난처를 만들고자 1681년에 땅을 구입하였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Scandinavia에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William Penn의 민주주의 원칙은 후에 미국헌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Pennsylvania주는 미국 창립 당시 있었던 13주 중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은 마을, 무성한 삼림지대와 전원 풍경은 일년에 거의 200만에 가까운 국내 관광객을 불러오고 있고, 해외 방문객에게도 인기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PA 인구는 12.8 Million이고 수도는 Harrisburg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전에는 석탄, 강철, 철도가 주요 산업이었고, 현재에는 산업, 농산물재배가 주 산업입니다. 특히 버섯농장은 년 \$330million을 판매 실적으로 미국에서 절반의 버섯작물을 생산합니다.



Independence Hall

Philadelphia는 미국이 탄생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 미국의 창립자들이 영국의 식민지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모여 의논하고, 미국의 헌법이 반포된 곳입니다. Philadelphia를 "the City of Brotherly Love" 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의 Phileo (love)와 Adelpnos (brother) 합성어입니다. 이 도시의 창설자 William Penn이 어느 누구도 종교의 박해를 하지 않는 관용을 마음에 그리며 이름 지었습니다.

Philadelphia는 2015년 미국 내 처음으로 "World Heritage City"가 되었고, Independence Hall은 UNESCO World Heritage site입니다. 이로써 Philadelphia는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인구 150만의 Philadelphia는 미국에서 6번째로 큰 도시로서 미국의 창립 역사가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 유럽풍의 cobblestone이 있는 작은 골목 El Freth's Alley, 옛기차정거장을 개조한 Reading Terminal Market, 파리의 Champs-Elysees를 모델로 한 Benjamin Franklin Parkway길 위의 여러 미술관등은 Phila를 "A booming cultural and culinary destination" (The Wall Street Journal), "one of the World's Greatest Places 2021"(Time), 2021 Gold List (Conde Nast Traveler)에 올리게 했습니다.



Liberty Bell

Philadelphia's Historic District는 Independence Hall을 비롯하여 Liberty Bell 등이 있는 미국역사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1790년에서 1800년까지 미국의 수도이었고 George Washington, John Adams 대통령이 살았던 The President's house도 있습니다.

Independence Hall에서 미국 독립 선언문이 선포되었고, 미국의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종은 1751년에 만들어 졌고 종에 쓰인 성경구절은 "Proclaim Liberty throughout all the Land un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입니다. 불행히도 London에 주문하여 만든 이 종은 처음 울렸을 때 깨어졌고, 새로 만든 종 역시 깨어져 1846년 이후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미국을 상징하는 종입니다.



Philadelphia Museum of Art

조각가 Robert Indiana가 John F. Kennedy Plaza에 세운 LOVE 작품은 유명한 landmark중 하나이고, 24,000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Philadelphia Museum of Art 앞에 세운 “Rocky” 동상 또한 많이 알려진 landmark입니다. Public Art Program 으로 4,000개가 넘는 벽화를 시내 곳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는 Philadelphia의 북서쪽 22mile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당시에는 도보로 하루 걸리는 거리입니다. 영국군이 Philadelphia를 점령하고 있을 때 George Washington이 the Continental Army와 겨울을 보낸 (12/1777- 6/1778) 야영지입니다. 3,500 acres 규모의 이 park는 기념비, 초원, 삼림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Valley Forge National Park

우리가 방문할 Lancaster의 Pennsylvania Amish Villages에서는 Amish 전통, 생활 방식,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Amish Village에 가는 길에 Lancaster에서 가장 유명한 smorgasbord, Shady Maple에서 Dutch 전통음식으로 점심을 하게 됩니다.

Amish는 검소한 생활, 단순한 의복, Christian 평화주의, 발달한 기계문명에 의존하지 않기, 자급자족, 전원생활, 노동, 겸손, 대화, 가족과 시간 보내기, 자신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합니다. 16-17 세기에 공식화된 종교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Mennonites, Amish, Quaker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가 공통점이 있으나, 이 세 그룹은 다릅니다. Amish 는 loving community life를 살며, 구원을 받으려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Amish내에서도 공동체안에서의 가치, 외부와의 절단, technology등에 대한 생각과 실천은 차이가 있습니다. Quaker의 주요 신앙은 매일의 생활에서 네가지, pacifism, simplicity, equality and honesty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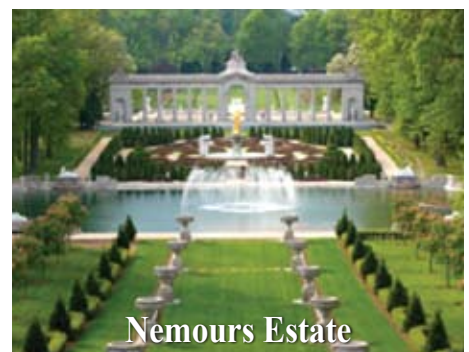
Amish Village

Longwood Gardens: Pierre du Pont 은 어릴 적부터 이 지역의 자연에 매료되었고, du Pont 가의 오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1907년에 Longwood에 600ft 길이 화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후 온실(Conservatory), Italian water garden을 만들고, 1930년대에는 202 acres에서 926 acres로 대지를 넓혀 원예뿐 아니라 농경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 84세로 일기를 마감한 Pierre du Pont은 이 Longwood gardens이 장래에도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재원을 남겼습니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project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방문객들을 감탄시키고 있는 유명한 관광소입니다.



Longwood Gardens

The Nemours Estate는 200 acre안에 프랑스식 정원을 포함한 프랑스 neoclassical 스타일로 77개 방을 가진 47,000 sq ft 대 저택 (거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1907년 Alfred Dupont이 프랑스 성(some call it “mini-Versailles”) 과 같은 모양으로 지은 이 저택은 많은 골동품, 유명한 그림들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39M 들여 3 년에 걸쳐 복구했습니다.



Nemours Estate

* Cover 및 여행지 사진은 National Park Service website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Philadelphia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려면 다음 website를 참조하십시오.
www.Wikipedia.com www.visitphilly.com www.nps.gov www.history.com
www.classroom.synonym.com www.longwoodgardens.org

2022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연례 총회

DoubleTree by Hilton Center City, Philadelphia

11월 2일 (수)

3:00 pm ~	등록
5:30 pm ~ 6:30 pm	저녁식사
7:00 pm ~ 8:00 pm	이사회

11월 3일 (목)

6:30 am ~ 7:00 am	새벽예배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45 am ~ 11:30 am	Tour: Independence Hall, Liberty Bell, Franklin Court
11:30 am ~ 1:00 pm	점심식사
1:00 pm ~ 5:00 pm	Tour: Philadelphia Museum of Art
6:00 pm ~ 7:15 pm	저녁식사
7:30 pm ~ 8:30 pm	Workshop
7:30 pm ~ 9:30 pm	의대 회의

11월 4일 (금)

6:30 am ~ 7:00 am	새벽 예배
7:00 am ~ 8:30 am	아침식사
9:00 am ~ 11:30 am	Tour: Valley Forge National Park
12:00 pm ~ 1:00 pm	점심식사
1:30 pm ~ 5:00 pm	Tour: The Amish Village
6:00 pm ~ 7:15 pm	저녁식사
7:30 pm ~ 8:30 pm	Workshop

11월 5일 (토)

6:30 am ~ 7:00 am	새벽 예배
7:00 am ~ 8:30 am	아침식사
9:00 am ~ 12:00 pm	Tour: Longwood Gardens
12:00 pm ~ 1:00 pm	점심식사
1:00 pm ~ 4:00 pm	Tour: Nemours Estate
6:00 pm ~ 10:00 pm	총회와 Gala Dinner

11월 6일 (일)

7:00 am ~ 8:30 am	아침식사
8:30 am ~ 10:00 am	예배, wrap-up meeting

2022년 이사회 Agenda

11월 2일 (수요일) 7:00pm~8:00pm

- 개회선언
- 사업보고
-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 공천위원회 보고
- 2023년도 연례총회 및 사업계획 발표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2022년 총회 Agenda

11월 5일 (토요일) 6:00pm~7:00pm

- 개회 선언
- 교가 제창
- 회장 환영사
- 이사장 인사
- 재정보고
- 의료원소식
- 공천위원회 보고
- 신임 이사장, 회장인사
- 2023 연례총회 발표
- 기타 안건 및 공지사항
- 폐회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11월 2일(수) - 6일(일)

2022 필라델피아 연례모임 신청서

이름	한글 (Maiden Name):	졸업년도:			
	영문 (Legal Name):	전공:			
동반자 (남편) 또는 Roommate's Name	한글:	영문:			
주소					
연락처	Cell:	Home:			
	Email:				
날짜 및 비용	11월 2일 (수) ~ 6일 (일) \$ 750/pp				
신청 마감일	8월 15일, 선착순 마감				
등록비	() 명 x \$ 750	Total Amount	\$		
이사회비	행사 후원금	장학기금	운영기금	이대서울병원 후원금	합계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 사항: 11월 2일(수) - 6일(일)까지 모든 식사, 호텔 (2인 1실) 및 관광 비용 불포함 사항: 항공권, 호텔까지 교통편 (Philadelphia - DoubleTree Hilton, Center City) 공장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약 9 마일 정도 항공권 예약시 유의사항: 11월 2일 도착: 등록 시작 3시부터 (이사회 7시 예정) 11월 6일 출발: 오전 일정 12시까지 총회 전 또는 후에 더 체류하고 싶으신 분은 하루에 \$150/pp (2인1실, 조식 포함) () 박 추가: () 명, Payment () 등록 용지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 만약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행사후원금, 장학기금, 운영기금, 이대서울병원 후원금은 뜻하시는대로 적극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EWUAANA
3. Mailing address: 하양신 회계 (의류직물, 87)
Yangsin Jeon
724 Lacrosse Ave., Wilmette, IL 60091
4. 신청 마감일: 8월15일, 선착순 마감 이후, 대기자 명단 가능
5. 혼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역, 전공, 졸업연도, 등을 고려해 객실을 배정해 드립니다.

문의

회장: 김(심)영미 (교육심리, 72)
(610) 310-5374 (Philadelphia)
Email: youngmishim@gmail.com

행사준비위원장: 이영옥 (불문, 63입)
Email: youngokleechoi@gmail.com

후원금 / 편집후기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중에도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뜻있는 북미주동창회 사업과 장학금 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며, 더욱 아름다운 동창회로 발전해 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비영리 단체 [501(C)(3)]인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후원자 명단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운영 기금	장학 기금	이대 서울병원	TOTAL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운영 기금	장학 기금	이대 서울병원	TOTAL
구 광 자	가정	67	100	2,000	200	200	2,500	이 문 주	수학	74	100				100
김 영 미	교육심리	72	100	1,000			1,100	이 문 희	약학	72	100				100
김 영 희	약학	68	100	5,000			5,100	이 상 희	작곡	67	100				100
김 정 혜	의학	70	100	1,000			1,100	이 풍 자	영문	62		1,000			1,000
김 정 희	가정	60	100	529	5000		5,629	이 혜 리	사회생활	60	100	100	100	300	600
김 한 주	교육	60	100		100		200	이 희 복	의학	74				10,000	10,000
김 현 자	시청각교육	72	100	100			200	임 성 속	물리	81	100				100
김 희 영	피아노	75	100				100	장 선 용	국문	63	100	100	300		500
서 옥 자	의대	70	100				100	정 명 자	영문	66	100				100
송 영 자	교육	60	100				100	조 효 은	교육	71	100		1,000		1,100
오 신 환	의학	64	100				100	최 경 속	영문	66	100				100
유 정 히	교육	61	100				100	하 양 신	의류직물	87	100				100
윤 중 식	의학	59	100	400	500		1,000	Chicgo				2,000			2,000
합 계											2,300	13,229	7,200	10,500	33,229

편집후기

[북미주 이화동창]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다. 북미주동창회가 창립된 2001년부터 신문 형식으로 출간된 [Ewhaian] 창립호를 시작해서 그동안 북미주 곳곳에 산재해 있는 1만여 이화동창들은 지면을 통해 반가운 만남과 함께 소식을 접하며 네트워크를 해왔다.

북미주동창회가 해를 거듭하며 개 개인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이 동창회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되어 뜻과 힘을 합하여 모교 (이대 서울병원 건립과 모교 장학생)를 돕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도 뜻있는 좋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해 왔다. 동창회 발전은 북미주의 많은 동창들의 가교적 역할을 해 온 동창회보에 힘입었음을 확신한다.

2022년에 편집장의 일을 맡으며 올 해에는 많은 동문들께 어떤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할까 고민하였다. 학교 소식은 물론, 일상을 살아 가는 동문들의 즐거운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오늘이 행복하고, 이어진 내일도 보다 나은 또 다른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몇 동문들의 취미생활 글을 모았다. 꿈을 가지고 열성으로 배우면 우리의 나날이 더욱 풍성해 지리라 생각한다. 흔쾌히 글을 써 주신 동문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32일간의 긴 여정. 산티아고 순례길을 무사히 마치고 보내온 사진과 글. 육체적으로는 고단했으나 정신적으로 평안을 얻은 순례길. 먼 길 다녀온 감동과 기쁨을 아직 온 몸에 느끼며 써 주신 기행기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갈망하는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직도 팬데믹으로 불안한 우리는 자칫 우울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활에 빠질 수 있다. 나의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 내 친지, 이웃에게 밝고 행복한 힘을 주리라 믿는다. 이를 위해 글을 써 주신 동문께 감사드린다.





Tel: 605-275-3070

Fax: 605-275-3071

Dr. Myung J. Cho MD. DABMA

Medical Director

*Chronic Pain Management Medical Acupuncture
Physical Therapy*

Located in the Independent Medical Arts Building

6709 South Minnesota Ave. Suite 201 Sioux Falls, S. D. 57108



장명주 (의대, 77)



New Light Medical Group
P E D I A T R I C S

안정옥 (의대, 73)



1716 W. Medical Center Drive
Anaheim, CA 92801

T: (714) 635-0600

F: (714) 635-0610

760 S. Washburn Ave. Suite 21
Corona, CA 92882

T: (951) 734-8000

F: (951) 734-8096

Our Exchange Number:
(714) 447-7397

ABC 상담 대화 교육원

ABC 상담 대화 교육원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사회를 화목하게 합니다.

ABC 교육/훈련 안내 (Introduction of A Beautiful Communication)

1. 아름다운 대화기술 : 기본기술 → 중급대화훈련 → 고급대화 문제해결 훈련
 - ▶ 첫 단계 아름다운 대화기술(Basic Communication Skill)
서로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기본 대화기술은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 가족관계, 사회생활(학교, 직장, 단체), 신앙생활(교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남녀노소의 뇌건강과 웰빙 그리고 인간관계에 필수인 7가지 대화 기술을 배운다.
 - ▶ 중급대화기술 훈련
 - ▶ 고급대화- 문제해결 훈련
2. 뇌 정신 건강/ 정신질환(Mental Illness Ministry, MIM)
강사 : 여천기 정신신경과 전문의, Dr. 여명미
뇌건강과 뇌질환의 의미, 정신질환과 뇌, 정신 질환의 증상, 상태 등을 교육하여 본인과 간호하는 가족이 확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ABC 성경적 부모교육(Education in Biblical Parenting) : 부모-자녀 대화교육
4. 영어권 대화기술 : ABC in English
5. 대화기술 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Communication Skill Leader Training)
6. 분노, 감정 조절 세미나(Anger Management Seminar) : 4시간에서 8시간
7. 마음치유 세미나(Mindfulness Seminar)와 치유 글쓰기 강의
8. 후속 모임들(Support Groups) : 한 달에 일회 사랑의 모임
9. 개인상담, 교육(Communication Skill based Individual Counselling and Education)
10. 인간관계증진을 위한 대화기술 연구(ABC Research)
11.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재능 개발(Talent Based Approach to Enhance Social Skills)

연락처 : 디렉터 서 유 진
yjseo911@gmail.com (714) 429- 6599
대표 여 명 미
myungmikimryu@gmail.com

보구녀관의 정신으로 100년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최초에서 최고로 ONLY ONE NO.1



해외 동창을 위한 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이용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회신

상담 및 예약

- 이대서울병원 1522-7000
- 이대목동병원 1666-5000
- 웰니스 건강증진센터 02-6986-2222~4
- 이대여성암병원 02-2650-5990~3
- 웰에이징센터 02-6986-2290
-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02-6986-5802~3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70 Alamo St. Simi Valley, CA 9306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Philadelphia, Pennsylvania